

『개역개정판』과 『새번역』의 ‘주(κύριος)’ 번역

심우진*

1. 머리말

성경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성경 원문의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했다. 하나님에 대한 2인칭 대명사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또는 ‘주님’으로 대신하거나, ‘하나님’으로 실명사를 사용하였다. 사람의 경우 ‘선생님, 선지자님, 예언자님, 임금님, 총독님’ 등의 관직 또는 직책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폐하, 어르신’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 다른 대용 명사를 써서 대명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아예 생략하기도 했다. ‘당신’의 경우 문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말은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서 적절하지 않다.¹⁾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를 ‘주’ 또는 ‘주님’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더욱 확장되어서 주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주’ 또는 ‘주님’을 삽입하여 성경 내용의 원만한 이해를 배려했다.

본 소론은 예수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를 ‘주’ 또는 ‘주님’으로 번역한 것, 그리고 주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도 ‘주’ 또는 ‘주님’을 삽입한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지칭하는 대용어로서 ‘주’ 또는 ‘주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이 칭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소론에서는 ‘주’가 기독교적 칭호로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 바울의 ‘주’ 개념, 요한복음 저자의 ‘주’ 개념, 그리고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주’ 또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우리말의 정서상 ‘당신’은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서 부적절하다. 이에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2. ‘주’ 칭호의 특징

‘주’는 본래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인 퀴리오스(κύριος)의 우리말 번역이다.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예수의 가장 중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인데, ‘주’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1318회), 예수(919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다(719회). ‘주’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독교적 칭호로서 등장하고 복음서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주’ 칭호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칭호가 하나님을 위한 칭호이기도 하고 예수를 위한 칭호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칠십인역에서 ‘주’(퀴리오스)는 하나님을 위한 칭호로 6,156회나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으로도 이어졌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구약인용에서 ‘주’가 여전히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신약성경에서 주로 예수를 지칭하는 ‘기독교적’ 칭호로서 등장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경우에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주’ 칭호로 하나님을 지칭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 칭호가 가지고 있는 이의성(二意性, Double-mean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의성을 가지고 있다. ‘주’는 종교적인 칭호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단어이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은 그 노예로부터 늘 퀴리오스라고 불렸고, 스스로 그 노예에 대해서 퀴리오스로서의 자기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는 종교적인 칭호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이의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는 일반적인 단어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칭호이다. 또 다른 이의성은 종교적인 칭호 안에서 발생한다. 이 칭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대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이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풀어가는 기준은 각 신약성경 저자의 퀴리오스 칭호에 대한 개념이다.

독일어 성경(LUT)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가 모두 HERR, 곧 ‘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단어의 용법과 구분하여 종교적인 칭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영어 성경(RSV)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성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는 모두 LORD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새번역』 역시도 시편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배적인 칭호로서 ‘주님’을 사용했다. 이것을 시편 23:1을 예를 들어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LUT	Der HERR ist mein Hirte, mir wird nichts mangeln.
RSV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개역개정』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번역』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이와 같은 구약성경의 표기법이 관습처럼 신약성경에도 적용되어 ‘주’가 예수를 지칭하는 유용한 칭호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칠십인역에서 ‘주’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배적인 칭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성경에서 ‘주’는 예수를 지칭하는 여러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를 지칭하는 여러 칭호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등 여러 칭호들이 나름대로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를 신약성경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지배적인 칭호로 볼 수 없다.

‘주’를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칭호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가는 기독교인이 되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지금부터는 퀴리오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칭호가 하나님과 예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퀴리오스를 역사적인 관점부터 조명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의 초점은 칠십인역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인 퀴리오스가 기독교적 칭호, 곧 예수를 지칭하는 칭호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2.1. 전승사적인 전망에서 본 ‘주’

2.1.1. 부세트(W. Bousset) 가설

부세트는 “예수가 주시다”라는 신앙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헬라화를 나타내며, 이것은 기독교의 발전단계에서 후대에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의 퀴리오스에 대해서 부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주 칭호는 현저하지 않다. 이 칭호는 본래 헬라적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칭호는 요한복음에서 부활기사에만 등장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이 칭호를 지상을 거니는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을 피했고, 대신 이 칭호를 부활의 예수에게 적용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칭호는 요한서신들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실제적으로 이 칭호의 사용을 피하려고 했다

는 것을 나타낸다.”²⁾ 이러한 부세트의 가설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퀴리오스를 부활의 예수에게 적용하려 했다는 그의 견해에 따라 퀴리오스는 지금까지 고기독론의 대표적인 칭호로 간주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요한복음 주석서들에서 그 그림자를 뚜렷이 볼 수 있다.

부세트 가설은 퀴리오스에 관한 한 마치 정설처럼 여겨지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논쟁의 초점은 예수를 ‘주’로 인식하고 고백한 것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는가이다. 부세트를 위시한 종교사학파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퀴리오스는 기독교 발전 단계에서 후대에 가서야 기독교적 칭호로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초기 팔레스틴 기독교가 아닌 이방 기독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유대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신비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사학파의 가설은 맹렬한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특히 신비종교에서 퀴리오스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종교사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행엘은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³⁾

2.1.2. 마라나타와 시편 110:1

퀴리오스가 예수를 위한 칭호로 사용된 것은 바울 이전으로 추정된다. 퀴리오스를 전승사적인 전망에서 본다면 이 칭호가 예수에게 적용된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퀴리오스의 아람어는 *Māre*이다. 예수가 마레로 호칭되었던 흔적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마라나타’⁴⁾ 문구가 그것이다(고전 16:22, 계 22:20, 디다케 10:6). 이 마라나타 문구에서 예수는 주(아람어 마레)로 호칭되고 있다. 이 문구에서 예수가 아람어로 호칭되고 있고, 이 문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종말의 기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 문구가 초기 팔레스틴 기독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헬라어 본문에 아람어 문구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문구가

2) W. Bousset, *Kyrios Christos. Geschichte des Christusglaubens von den Anfängen des Christentums bis Irenaeus*, FRLANT 21 (Göttingen²1921), 186-222.

3) M. Hengel, *Der Sohn Gottes. Die Entstehung der Christologie und die jüdisch-hellenistische Religionsgeschichte* (Tübingen: Mohr, 1975), 특히 120-125. 한편, 후르타도는 종교사학파 이후의 신약기독론의 흐름을 짚은 분량에 잘 정리하였는데, 지난 세기의 복잡했던 기독론 논쟁을 각각의 입장 별로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L. W. Hurtado, *Forschungen zur neutestamentlichen Christologie seit Bousset*, Theologische Beiträge 11 (1980) 158-171.

4) 한은 ‘마라나타’가 성만찬 의식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종말론적 전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F. Hahn,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Ihre Geschichte im frühen Christ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100-112. 그러나 최근에 카리는 이와 같은 견해에 비판을 가한다. M. Karrer, *Jesus Christus im Neu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특히 342-343.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함축적으로 나타내 준다.⁵⁾ 따라서 아랍어 마레는 예수의 기독교적 칭호인 퀴리오스의 이전 형태일 수도 있다.

한편 시편 110:1은 부활의 예수를 묘사하는 광범위한 표현을 제공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개역개정』) 이 구절은 신약시대에 예수를 묘사하는 광범위한 표현이 되었는데, 즉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시편 110:1은 여러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의해서 인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칠십인역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인 마소라 텍스트에는 “여호와(Tetragramm)께서 내 주(아도나이)에게”로 되어 있으나, 칠십인역에서는 “퀴리오스께서 퀴리오스에게”로 되어 있다. 바로 이 헬라어 본문을 여러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했다(막 12:36; 마 22:44; 눅 20:42-43; 행 2:34-35; 히 1:13).

마가복음 저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εἶπεν κύριος τῷ κυρίῳ μου)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막 12:36-37). 마가복음에 따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곧 퀴리오스라고 호칭했다(Δαυὶδ λέγει αὐτὸν κύριον).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한 것은 “주께서 내 주께”의 두 번째 퀴리오스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퀴리오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마가복음 저자가 시편 110:1의 칠십인역 본문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그리고 두 번째 퀴리오스는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본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편 110:1의 칠십인역 본문을 인용하는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시편 110:1을 인용하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첫 번째 퀴리오스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 퀴리오스를 예수로 이해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

5)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오래 전에 한 로린슨의 종교사학과에 대한 비판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마라나타 문구는 부세트 이론의 아킬레스건이다.” A. E. J. Rawlinson,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Christ: the Bampton lectures for 1926* (London: Longmans, 1949), 235.

6)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로 고백한다. 한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모티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홍성철, “에베소서 1:17-23에서의 정사와 권세와 로마 황제숭배사상”, 『신약논단』 15:1 (2008), 135-177, 특히 150-153 참조.

하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에서 예수를 읽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퀴리오스가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방의 신비종교로부터가 아닌, 칠십인역의 시편 110:1로부터일수도 있다.

3. 바울의 ‘주’

바울은 ‘주’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칠십인역을 여러 차례 인용했는데, 이 인용에서 등장하는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 칭호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의성, 곧 하나님의 칭호와 예수의 칭호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은 ‘주’가 예수를 가리키는 기독교적 칭호로 사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주’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를 바울은 배려해야만 했다. 그 문제는 이 칭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리키던 칭호였다는 점이다. 만일 ‘주’가 예수를 가리키는 칭호로 확립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칭호로 지칭해야 하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θεός)과 ‘주’(κύριος)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각각 36회와 24회 사용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많은 분량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단어들은 비교적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과 ‘주’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 즉 ‘주’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칭호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의 시대에 친숙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 하나님’이란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구절을 살펴보면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7) 바울은 퀴리오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의성, 곧 일반적인 단어와 종교적인 칭호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울도 퀴리오스의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용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서신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갈 4:1),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롬 14:4). 그 외 고린도전서 8:5-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바울서신에서 극히 적은 수로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단어가 종교적인 칭호와 가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긴장도 발견되지 않는다.

-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1: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3: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 3: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단어와 한 문장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모두 네 차례이다. 그런데 네 번에 걸친 모든 경우에서 일정한 현상이 발견된다. 네 번 모두 ‘주’는 ‘예수’를 수식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πατήρ)라는 단어가 수식한다. 네 번 모두 ‘주’가 ‘예수’만을 수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같은 문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⁸⁾ 여기서 ‘주’ 칭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드러난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예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이다. ‘주’가 예수를 지칭하는 기독교적 칭호로 받아들여진 것이 바울 이전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도록 확립된 것은 바울 이전일 것이다.⁹⁾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는 ‘주’라는 바울의 신념은 다른 바울서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8)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문장에서도 ‘주’는 ‘예수’만을 수식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살전 2:15, 그 외 4:1; 5:9 참조).

9) 김학철은 마태복음 11:25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란 용어의 유대교적 전통을 추적하였다. 그는 이 용어가 유딧서와 토비트서에서 유래하여 Q를 거쳐 마태복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저자가 이 용어를 자신의 신학적인 틀 안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구약시대에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것으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소론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질문은 마태복음에 적용되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이 바울 및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울 및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특히 가장 적극적인 것은 요한복음이다. 김학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 마태복음의 하나님 상(像)의 일면”, 『신약논단』 15:1 (2008), 37-67.

갈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롬 8:14-17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아버지’와 ‘하나님’, ‘주’와 ‘예수’의 결합은 바울서신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바울서신은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인사문구에는 일정하게 ‘아버지’와 ‘하나님’, ‘주’와 ‘예수’가 결합되어 있다.

롬 1: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¹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¹¹⁾ ‘주’는 ‘예수’이다. 이것은 다 음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전 8:5-6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던 칭호인 ‘주’가 예수에게로 전이되었다는 바울의 이해

10) 그 외에도 롬 1:4; 5:1, 11; 6:23; 7:25; 8:14-17, 39; 10:9; 15:6, 30; 고전 1:3, 9; 6:11, 14; 7:17; 8:6; 12:3; 15:24, 57; 고후 1:2, 3; 11:31; 13:13; 갈 1:1, 3, 4; 4:6; 엡 1:2, 3, 17; 5:20; 6:2; 빌 1:2; 2:11; 4:20; 골 1:3; 3:17; 살전 1:1; 살후 1:1-2, 12; 2:16; 딤햐전 1:2; 딤햐후 1:2; 몬 3. 바울서신 중에서 디도서는 예외이다. 디도서는 인사문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결합하기는 하지만, 예수와 결합한 칭호는 퀴리오스가 아니다. 디도서의 인사문구에서 예수와 결합한 칭호는 소테르(σωτήρ), 곧 구원자이다. 디도서 1:4 참조.

11) 물론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지칭된다. 가장 유명한 예가 주기도문이다(마 6:9; 눅 11:2). 이처럼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지칭되고는 있지만, 한 문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동시에 예수를 주로 지칭하는 경우는 바울서신밖에는 없다.

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빌립보 찬송시이다.¹²⁾

빌 2:6-11 빌 2:6-1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낮추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였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예수이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포한다.

롬 10: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4. 요한복음의 ‘주’

바울의 ‘주’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주’를 살펴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주’가 바울서신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주’가 전적으로 예수를 지칭하는 칭호인 것은 바울과 요한복음 저자 모두에게 동일하

12) 빌립보 찬송시가 바울 이전의 찬송시였는지, 아니면 바울 자신의 저작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배재욱, “빌립보서 2:6-11의 ‘그리스도 찬송’에 대한 기독교론적인 연구”, 『신약논단』 14:1 (2007), 99-133 참조.

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주’를 모두 예수를 지칭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칠십인역 인용에서 등장하는 ‘주’도 예수를 지칭하도록 했다. ‘주’를 철저히 기독교론적 칭호로 받아들인 것은 바울과 요한복음 저자가 동일하지만, 예수가 ‘주’인 것을 전개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바울이 ‘주’ 칭호가 갖고 있는 이의성 중에서 종교적인 칭호로서의 이의성, 곧 하나님의 칭호와 예수의 칭호 사이의 긴장에 관심을 가졌다면, 요한복음 저자는 또 다른 이의성, 곧 ‘주’의 일반단어로서의 용법과 종교적인 칭호 사이의 긴장에 관심을 가졌다.

요한복음의 전반부(1-12장)에서 등장인물이 예수에게 한 대사를 살펴보면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대사를 쿨리오스의 호격인 쿨리에, 곧 ‘주여’로 시작한다(4:11, 15, 19, 49; 5:7; 6:34, 68; 9:36, 38; 11:3, 12, 21, 27, 32, 34, 39; 12:21)¹³⁾. 그리고 이러한 용법은 고별연설(13-17장)에서 제자들이 이어받는다(13:6, 9, 25, 36, 37; 14:5, 8, 22). 이렇듯 등장인물의 대사가 ‘주여’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는가? 이것의 판단 여부는 요한복음 저자가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조명된다.

요한복음의 ‘주’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헬라어 원문의 요한복음에서 ‘주’는 모두 53회 등장한다.¹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주’가 모두 의미상 예수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요한복음도 칠십인역을 인용했는데, 이 칠십인역에서 사용된 ‘주’조차 예수를 지칭하도록 했다.¹⁵⁾ 또한 요한복음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주’로 지칭한다(4:1; 6:23; 11:2; 20:20; 21:12).

요한복음의 ‘주’에서 특징적인 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주’ 칭호가 가지고 있는 이의성 중에서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용법과 종교적인 칭호 사이의 긴장에

13) 11:21과 11:32의 헬라어 원문에는 ‘주여’(쿨리에)가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누락했다. 한편 『새번역』은 이 두 곳에서 헬라어 원문대로 호격인 ‘주님’을 수록했다. 12:21의 경우, 헬라어 원문에는 ‘주여’(쿨리에)가 있는데, 『개역개정』은 ‘선생이여’, 『새번역』은 ‘선생님’으로 번역했다.

14) 헬라어 원문과 『개역개정』에서 등장하는 ‘주’의 빈도수는 다르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주’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개역개정』에서 ‘주’로 번역하여 삽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69, 11:22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주’가 사용되지 않았고, 11:27에서는 한 번만 사용되었다. 4:1의 경우 『개역개정』이 “주께서 아신지라”로 번역했는데, 이 구절의 NTG 27판 헬라어 원문에는 ‘주’가 없다. 그러나 NTG 27판이 받아들인 ὁ Ἰησοῦς도 사본상 지원을 받고 있으나(8, D, Θ, …), ὁ κύριος는 더 나은 사본의 지원을 받는다(P^{66,75}, A, B, …). 따라서 『개역개정』이 받아들인 “주께서 아신지라”가 더 설득력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다.

15) 이사야 40:3의 인용의 경우 공관복음에서는 칠십인역을 저자가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막 1:2-3, 마 3:3, 눅 3:4),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대사로 되어 있다(요 1:23). 그리고 12:13과 12:38에서 등장하는 ‘주’도 본문의 내용상 예수를 가리킨다.

많은 배려를 했다는 점이다. ‘주’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하다. 고대 사회에서 좋은 주인에게 ‘주’라고 호칭했고, 또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주’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용법을 요한복음 저자도 알고 있었다.¹⁶⁾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위의 도표들에서 등장하는 ‘주여’(κύριε)는 종교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주여’는 일반적인 단어의 용법 외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한복음 저자는 종종 어떤 사건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세메이온’으로 대표된다. 또한 요한복음 저자는 등장인물의 오해나 미흡한 이해를 예수가 수정시켜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학을 피력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신학에서 ‘오해기법’으로 잘 알려졌다.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주여’도 단순한 일반적인 단어로서의 용법 외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토록 많은 등장인물의 대사가 ‘주여’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다. 이러한 대사들은 모두 예수에게 한 대사들이고,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의 신학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이 대사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대사가 없고,¹⁸⁾ 오히려 초대교회의 신앙 및 신앙고백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¹⁹⁾

요한복음을 ‘주’ 칭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서 전반에 걸친 큰 프로그램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자 ‘주’로 지칭된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주’로 지칭되었는데, 여기서는 관사 없이 지칭되었다(1:1, 23). 그런데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는 관사와 함께 ‘하나님’과 ‘주’로 지칭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ὁ κύριός μου καὶ ὁ θεός μου 20:28). 예수를 가리키는 기독교적 칭호로서의 ‘주’는 부활기사(20-21장)에서

16) “중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13:16; 15:20).

17) 김문현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정체와 사명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에서 예수와 다른 등장인물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상호작용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김문현, “요한복음의 인물 연구 역사와 방법론 고찰”, 「신약논단」 15:3 (2008), 769-804.

18) 요한복음에서 ‘주여’로 자신의 대사를 시작하는 인물 중에서 부정적인 인물은 없다. 이들은 예수에게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말한다(마 27:63).

19) Kyrie eleison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기도문이다. Kyrie eleison은 헬라어 Κύριε, ἐλέησόν με에서 왔다(마 17:15; 20:30, 31 등).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운의 변화(εη가 ει로 / με나 ημάς 등의 목적어가 탈락)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도문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초대교회 당시, 즉 라틴어보다도 헬라어가 더 보편적으로 쓰이던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절정을 이룬다. 여기서의 관사가 붙은 독립적인 기독교론적 칭호로서의 ‘주’가 예수를 지칭한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ἐώρακα τὸν κύριον 20:18)고 말한다. 제자들이 처음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ἐωράκαμεν τὸν κύριον 20:25)고 말한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처음에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때 애제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를 가리켜서 “주님이시다”(ὁ κύριός ἐστιν 21:7)라고 말한다. 그런데 부활기사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이나 다른 등장인물들로부터 정관사와 함께 “ὁ κύριόςο”로 호칭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예수를 거의 대부분 “ὁ κύριόςο”로 호칭하고 있고(20:2, 13, 18, 25; 21:7), 이것은 요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이다(20:20; 21:12).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자 ‘주’로 지칭되었는데, 여기서의 관사 없이 지칭되었다(1:1, 23).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가 관사와 함께 ‘하나님’이자 ‘주’로 지칭된 것과 상응을 이룬다(20:28). 이러한 요한복음 서두와 후반부의 상응 사이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이러한 등장인물 대부분은 자신의 대사를 ‘주여’로 시작한다. 결국 요한복음에는 ‘주’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이 요한복음의 진행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요한복음 저자는 기독교론적 칭호로서의 ‘주’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자신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에 따르면 ‘주’는 오직 예수이다.

5.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요한복음 본문에서의 ‘주’ 번역

헬라어 원문의 요한복음에서 ‘주’는 모두 53회 등장한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요한복음에서 ‘주’는 모두 74회 등장하고, 『새번역』에서는 69회 등장한다. 헬라어 원문과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의 등장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에서 ‘주’가 등장했는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이를 생략한 경우도 있으므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작업의 편의상 ‘주’를 퀴리에(호격)와 퀴리오스로 구분하기로 한다.

퀴리에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며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먼저 퀴리에를 살펴보도록 한다.

5.1. 퀴리에

퀴리에를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새번역』에서는 ‘주님’으로 번역했다. 우선 『개역개정』에서 퀴리에를 ‘주여’로 번역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물론 ‘주여’는 주로 대화에서 등장하므로 바로 앞에 있는 당사자에게 ‘-여’의 호격조사를 붙여가며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여’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이미 한국기독교인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기도회에서 종종 ‘주여’를 크게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한다. ‘주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표현인 것이다. 또한 『개역개정』이 『새번역』과 달리 우리말 성경의 역사를 이어오는 고어체의 맛과 멋을 살린 점을 감안할 때, ‘주여’라는 표현은 이와 어울린다고 하겠다. 특히 ‘주여’는 퀴리에가 호격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호격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화하는 상황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주여’는 어색함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고어체와 어울리면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새번역』에서는 퀴리에를 ‘주님’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은 퀴리에뿐만 아니라 퀴리오스를 대부분 ‘주님’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에서 퀴리에가 ‘주님’으로 번역된 것 역시 적절해 보인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호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개역개정』과 달리 『새번역』은 현대인이 본문을 읽는 데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으므로 내용에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현대적인 감각의 공손한 경건이 느껴지므로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퀴리에 번역에 있어서 적절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헬라어 원문의 요한복음에서 호격인 퀴리에에는 모두 33번 등장한다(4:11, 15, 19, 49; 5:7; 6:34, 68; 8:11; 9:36, 38; 11:3, 12, 21, 27, 32, 34, 39; 12:21, 38; 13:6, 9, 25, 36, 37; 14:5, 8, 22; 20:15; 21:15, 16, 17, 20, 21). 먼저 『개역개정』의 경우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역개정』은 퀴리에를 20장까지는 ‘주여’로 번역했고, 21장에서는 ‘주님’으로 번역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여’에서 ‘주님’으로 번역을 달리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심지어 21:20은 13:25의 인용인데도 ‘주님’과 ‘주여’로 달랐다. 동일한 단어인 퀴리에를 번역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서 ‘주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퀴리가 헬라이어 원문에 있는데도 이를 번역하지 않고 탈락시킨 경우가 있다. 11:21과 11:32이 그것이다.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심 단락에서는 퀴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을 ‘주여’로 번역한 대부분의 경우(11:3, 12, 27, 34, 39)와 마찬가지로 11:21, 32에서도 퀴리에는 생략되지 않고 ‘주여’로 번역되어야 한다. 11:21과 11:32에서 퀴리가 탈락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

(3) 12:21에서 퀴리에는 ‘선생이여’로 번역되었다. 만일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퀴리오스가 전적으로 예수만을 지칭한다고 보면 12:21은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헬라인들이 빌립을 가리켜서 퀴리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개역개정』은 ‘선생이여’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이어 원문에서의 단어는 퀴리에이므로 ‘선생이여’라는 번역이 적절한지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15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퀴리이라고 호칭하였으나 그녀는 그를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저자는 복음서의 내용을 종종 자신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인 ‘오해기법’을 통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도록 하였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퀴리이라고 호칭한 대상은 결국 예수였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맥락을 12:21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려고 하였으나 직접 만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함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신약성경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역사적 예수보다 훨씬 후대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소론에서 살펴본 대로 퀴리가 이끄는 대사가 초대교회의 신앙고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는 대사와 퀴리에의 결합은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이 구절에서 퀴리에를 ‘선생이여’로 번역한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새번역』은 퀴리에를 ‘주님’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은 호격인 퀴리에뿐만 아니라 모든 격의 퀴리오스를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퀴리에와 퀴리오스의 다른 격, 즉 1격부터 4격의 형태는 우리말로는 구분할 수 없게 되

었다. 그러나 ‘주님’이란 표현이 호격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고, 『새번역』이 갖고 있는 매끄러운 현대어 문장과 매우 잘 어울리므로 쿼리에를 ‘주님’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²⁰⁾ 그러나 『새번역』의 쿼리에 번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4장에서 등장하는 쿼리에를 모두 다른 단어로 번역했다.

- 4: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쿼리에),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 4:15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쿼리에),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 4:19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쿼리에),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 4:49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쿼리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새번역』은 4장에서 등장하는 4번의 쿼리에를 모두 ‘선생님’이란 단어로 번역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상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심 단락에 해당한다. 그런데 『새번역』은 5장부터 등장하는 쿼리에에는 대부분 ‘주님’으로 번역했다. 4장에 등장하는 쿼리에를 ‘선생님’이란 다른 단어로 번역해야 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5장에 등장하는 38년 앓은 병자가 예수에게 말한 쿼리에를 『새번역』은 ‘주님’으로 번역했다. 4장의 왕의 신하와 5장의 38년 앓은 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와 38년 앓은 병자가 결정적으로 다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번역을 달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쿼리에로 자신의 대사를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4장의 쿼리에에는 모두 ‘주님’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2) 『새번역』이 쿼리에를 ‘선생님’으로 번역한 것은 위의 경우만이 아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는 예수에게 고침을 받은 후 예수를 다시 만난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하는데 이 구절을 『새번

20) 새번역이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문장으로 번역된 것은 번역원칙과 지침에 있어서 현격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 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410 (1993), 41-50과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410 (1993), 51-65.

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9:36 그가 대답하였다. “^(각주)선생님(퀴리에),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각주 ‘선생님(36절)’과 ‘주님(38절)’은 같은 그리스어 퀴리오스의 번역임

9:38 그는 “^(각주)주님(퀴리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각주 ‘선생님(36절)’과 ‘주님(38절)’은 같은 그리스어 퀴리오스의 번역임

여기서는 퀴리에를 한 번은 ‘선생님’으로, 다른 한 번은 ‘주님’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번역』이 각주를 통해서 같은 단어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말한 동일한 단어를 우리말로 달리 번역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원어가 퀴리에임을 독자들이 알아차리도록 배려한 어떤 장치로 고안된 듯 보이는데, 본문을 접하는 독자는 이것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배려가 도리어 어색하게 만든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은 36절의 퀴리에를 ‘선생님’으로 번역함으로써 발생했다. 36절의 퀴리에를 ‘선생님’으로 번역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 만일 『새번역』이 예수와 가까운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호칭하고, 좀 더 먼 관계의 사람은 ‘선생님’으로 호칭하도록 전제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5장의 38년 앓은 병자가 예수에게 말한 퀴리에를 『새번역』은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5장의 38년 앓은 병자와 9장의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차이점은 또한 무엇인가? 이 경우도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등장인물이 대부분 자신의 대사를 퀴리로 시작하도록 한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개역개정』의 11:21과 11:32의 퀴리에 탈락은 『새번역』에서 해결되었다.

11:21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퀴리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11: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퀴리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쿼리에가 탈락한 것을 『새번역』은 ‘주님’으로 번역하여 수록했다. 『새번역』이 이것을 ‘주님’으로 번역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4) 12:21의 쿼리에를 『새번역』은 『개역개정』과 같이 ‘선생님’으로 번역했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상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한 말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20:15의 쿼리에 번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쿼리에),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새번역』은 이 구절의 쿼리에를 ‘여보세요’로 번역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를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한 말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인 ‘오해기법’을 감안한다면 이 구절의 쿼리에에는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개역개정』은 이 구절의 쿼리에를 ‘주여’로 번역했다. 헬라어 원문에서 쿼리에가 사용되었고, 이 쿼리에가 결국 부활의 예수를 지칭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어에 따라 『개역개정』처럼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쿼리오스

쿼리오스는 대부분 ‘주’, ‘주님’, ‘주인’으로 무난하게 번역되었다. 그런데 쿼리오스 번역과 관련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쿼리오스를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번역한 경우가 그것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쿼리오스와 관련해서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번역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칭대명사가 예수를 지칭할 때 ‘주’로 번역한 경우가 있고, 둘째 아무런 단어가 없는데 ‘주’를 첨가한 경우가 있다.

우선 『개역개정』에서 인칭대명사를 ‘주’로 번역한 경우(2:17; 6:69; 11:2, 16; 12:41; 13:6, 37; 21:15, 16, 17, 20)와 아무런 단어가 없는데 ‘주’를 첨가한 경우(6:68; 11:21, 22, 27, 32; 14:5; 16:30; 20:18; 21:17)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헬라어 원문의 인칭대명사를 ‘주’로 번역한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

리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단어가 없는데도 ‘주’를 삽입한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히 우리말에서 손윗사람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라는 단어로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이다.²¹⁾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주’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²²⁾

그러나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개역개정』에서 예수를 ‘당신’으로 지칭하는 경우(1:49; 3:2; 4:9, 11, 12, 20; 6:30; 7:3, 20; 10:24; 20:15; 21:12)이다. 『개역개정』에서 예수를 ‘당신’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와 거리가 있는 등장인물의 대사이다. 이것은 『새번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당신’으로 지칭하는 많은 경우와 일맥상통한다(특히 8장). 그러나 『개역개정』의 실제 용례를 보면 예수와 가까운 인물도 예수를 ‘당신’이라고 지칭한다. 그중에는 예수의 제자들(1:49; 21:12)과 마리아(20:15)도 포함되어 있다. 1:49의 나다나엘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5의 마리아는 예수를 동산지기로 오해했기 때문에 ‘당신’으로 지칭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예수의 제자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본문으로는 제자인 나다나엘이 예수를 ‘당신’이라고 지칭했다는 인상이 더 강하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잘 몰라서 ‘당신’이라고 지칭하도록 했다면, 21:12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구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란 단어가 예수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단어라면 이러한 원칙을 더욱 세심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번역』은 예수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등장하는 경우와, 아무런 단어가 없는데 예수를 지칭하는 경우에 대부분 ‘주님’이란 단어로 번역하거나 삽입했다. 그런데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6:68-69이다. 이 구절의 『새번역』은 다음과 같다.

21) 나체운은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헬라어 2인칭 대명사를 ‘당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나체운, 『주기도 - 사도신조 - 축도』(서울: 성지출판사, 2001), 특히 105-122.

22) 이러한 경우 ‘주’는 기록론적 칭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전혜영,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91.

6:68-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68절의 ‘선생님’은 아무런 단어가 없는데 삽입한 것이고, 69절의 ‘선생님’은 인칭대명사를 번역한 것이다. 이 두 부분을 『개역개정』은 모두 ‘주’를 삽입하거나 번역했는데, 『새번역』은 모두 ‘선생님’이란 단어를 삽입하거나 번역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구절은 소위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각 복음서에서 위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관복음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마 16:16	헬라어 원문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τοῦ ζῶντος
	『개역개정』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번역』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막 8:29	헬라어 원문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개역개정』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새번역』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눅 9:20	헬라어 원문	τὸν χριστὸν τοῦ θεοῦ
	『개역개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새번역』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은 마태복음 16:16과 마가복음 8:29의 인칭대명사(σύ)를 ‘주’로 번역하였고, 『새번역』은 ‘선생님’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9:20의 경우 헬라어 원문에서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공히 아무런 단어도 삽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 퀴리오스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주’가 삽입된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곧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시점에서 예수를 ‘주’로 인식했느냐의 여부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단독적인 칭호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마 16:16,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가롯 유다의 대사(마 26:25, 49, ‘랍비’)를 제외하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를 ‘주’로 호칭한다(마 8:21, 25; 14:28; 16:22; 17:4; 18:21; 26:22).²³⁾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마태복음 16:16에서의 ‘주’는 전체적인 문맥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와 다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에 의해서 한 번도 ‘주’로 호칭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어떤 한 등장인물이 예수를 ‘주’로 호칭할 뿐이다(막 7:28). 따라서 마가복음 8:29에서 ‘주’를 삽입한다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호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호칭한 적이 있는 것이 된다. 이 구절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마가복음 저자의 퀴리오스 개념을 오해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번역』은 마태복음 16:16과 마가복음 8:29에서 인칭대명사를 ‘선생님’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예수가 복음서에서 디다스칼로스, 또는 랍비로 여러 차례 호칭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과 구분이 안 된다. 디다스칼로스, 또는 랍비도 나름대로 복음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당신’이란 단어가 예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칭대명사(σύ)를 우리말 인칭대명사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으로서 누가복음 9:20과 같이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다. 누가복음 9:20에는 인칭대명사가 없지만 마태복음 16:16과 마가복음 8:29에는 인칭대명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좁혀진다. 인칭대명사(σύ)를 ‘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것인가. 만일 인칭대명사를 생략한다면 마태복음 16:16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29은 “그리스도시니이다”로 번역된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대한 충분한 번역

23) 마태복음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한 예수의 호칭은 다양하게 등장한다. ‘주’(11회), ‘다윗의 자손’(6회), ‘선지자’(2회), ‘하나님의 아들’(1회).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9장부터 ‘주’가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단독적인 칭호로 등장한다. 이미 5:8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주’로 호칭한 바 있는데, 9장부터는 단독적인 칭호로 등장해서 총 8회 사용된다. 누가복음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한 예수의 호칭은 다양하다. ‘주’(9회), ‘선생’(3회), ‘예수’(3회), ‘다윗의 자손’(2회), ‘선지자’(1회), ‘에피스타타’(1회).

이 될 수 없지만, ‘주’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6. 맺음말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헬라어 원문에 해당하는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경우나,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이 어색한 경우 종종 ‘주’로 번역하거나 삽입해서 해결하였다. ‘주’는 예수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기독교적 칭호이고, 고유명사가 아닌 직책을 지칭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로 예수를 지칭하려는 경우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용어로서의 ‘주’가 신약성경 저자의 ‘주’ 개념을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훌륭한 우리말로 성경본문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경우 ‘주’를 대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신약성경 저자의 ‘주’ 개념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Keywords)

주, 퀴리오스, 퀴리에, 이의성.

Lord, Kyrios, Kyrie, double-meaning.

(투고 일자: 2011. 2. 25; 심사 일자: 2011. 2.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3. 29)

<참고문헌>(References)

- 곽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
- 김문현, “요한복음의 인물 연구 역사와 방법론 고찰”, 『신약논단』 15:3 (2008), 769-804.
-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2.
- 김창락, “『표준새번역 개정판』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0 (2002), 7-40.
- 김학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 마태복음의 하나님 상(像)의 일면”, 『신약논단』 15:1 (2008), 37-6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나채운, 『주기도 - 사도신조 - 축도』, 서울: 성지출판사, 2001.
- 도한호, “『개역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 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410 (1993), 41-50.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4.
- 배재욱, “빌립보서 2:6-11의 ‘그리스도 찬송’에 대한 기독교론적인 연구”, 『신약논단』 14:1 (2007), 99-133.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2-73.
-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410 (1993), 51-65.
-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81.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 전혜영,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91.
- 홍성철, “에베소서 1:17-23에서의 정사와 권세와 로마 황제숭배사상”, 『신약논단』 15:1(2008), 135-177.
- Bousset, W., *Kyrios Christos. Geschichte des Christusglaubens von den Anfängen des Christentums bis Irenaeus*, FRLANT 21, Göttingen²1921.
- Hahn, F., *Christologische Hoheitstitel. Ihre Geschichte im frühen Christ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 Hengel, M. *Der Sohn Gottes., Die Entstehung der Christologie und die jüdisch-hellenistische Religionsgeschichte*, Tübingen: Mohr, 1975.
- Hurtado, L. W., *Forschungen zur neutestamentlichen Christologie seit Bousset*, Theologische Beiträge 11, 1980, 158-171.
- Karrer, M., *Jesus Christus im Neu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 Rawlinson, A. E. J.,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Christ: the Bampton lectures for 1926*, London: Longmans, 1949.

<Abstract>

Übersetzung von Kyrios in koreanischen Bibeln

Dr. Woo-Jin Shi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Bibelübersetzung hat viele Schwierigkeiten in manchen Bereichen, besonders wenn es kein betreffendes Wort gibt. Koreanische Bibelübersetzer versuchten die Schwierigkeiten zu beseitigen, damit sie einige Ersatzwörter nahmen. Unter ihnen ist Kyrios ein Ersatzwort, und zwar am häufigsten verwendetes Wort. Diese Arbeit untersucht ob die Ersatzung des Kyrios akzeptabel ausgeführt wird. Wenn man Kyrios als ein Ersatzwort verwenden will, soll er die sprachlichen und theologischen Eigentümlichkeiten dieses Titels berücksichtigen.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skizziert über Kyrios aus traditionsgeschichtlicher Perspektive. In dieser Skizze wird vermutet, dass der Kyrios-Titel als christologischer Titel aus alttestamentlicher Tradition herausgekommen ist, anders als Bousset behauptet, der Kyrios-Titel sei aus Mysterienkult herausgekommen. Bei Paulus ist Kyrios grundsätzlich ein Titel nicht nur für Gott als auch für Jesus. Aber er bemüht sich den Titel nur für Jesus anzuwenden. So steht Kyrios im Zentrum der Theologie von Paulus. Das ist ganz nah zum Johannesevangelium, wo Kyrios als Nominativ und als Vokativ sorgfältig differenziert wird.

Diese Arbeit prüft die jeweiligen Übersetzungsstellen von Kyrios in koreanischen Bibeln. Da wird Kyrios in einigen Stellen eingefügt, obwohl er in NTG nicht vorhanden ist, damit man den Text noch verständlicher macht. Das schwierigste Problem kommt daraus, dass es kein betreffendes koreanisches Wort zum Personalpronomen 2. Singular gibt, und zwar in Höflichkeit. In diesen Stellen wird Kyrios als Ersatzwort für verständlichen Text eingefügt. Aber in diesen Stellen soll man berücksichtigen, dass das Verständnis der Leser über die Theologie von Kyrios des Verfassers wegen der Ersatzung nicht verhindert wird.